삼성전자 주식 누가 많이 갖고 있을까

전남 지난해 주주 1인당 5012주…2년 연속 1위
자본력 지닌 50~60대 투자자 비중 높은 영향
전국 20세 미만 미성년 주주 35만 '역대 최대'

주식 투자 열풍이 MZ 세대에도 불면서 지난해 '국민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는 35만명을 넘겼다.

중장년 투자자 비중이 높은 전남의 경우 주주 1인당 보유 주식 수는 2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지역 주주(법인 포함) 수는 광주 12만9202명·전남 10만2693명 등 23만1895명으로, 전년보다 151.4%(13만9659명) 증가했다.

광주 삼성전자 주주는 지난 2020년 5만1103명에서 이듬해 12만9202명으로, 152.8%(7만8099명) 뛰었다.

전남은 4만1133명에서 10만2693명으로, 149.7%(6만1560명) 증가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지닌 전체 주주는 506만6466명으로, 전년(215만4081명)보다 135.2%(291만2385명) 늘었다.

전체 주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2.6%·전남 2.0%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지역 주주들이 지닌 주식 수는 광주 2102만주·전남 5억1473만주로 집계됐다.

주주 1인당 평균 보유 주식 수는 광주 163주·전남 5012주였다.

전국 평균 1인당 보유 주식은 1178주였다.

전남은 전국 평균과 서울 평균(3683주)을 훌쩍 넘을뿐더러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남 삼성전자 투자자 평균 보유 주식 수는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에는 1인당 보유 주식 수가 서울(3만404주)에 이어 2위(2만2461주)를 차지했지만 2020년부터는 서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주식 수는 전남과 서울에 이어 전북(250주), 대전(246주), 광주(163주), 울산(150주), 경기(148주) 순으로 많았다.

삼성전자 투자자 한 명당 보유 주식 수가 전남이 가장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들한 'MZ 투자' 분위기와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주식 투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20대 미만 미성년 주주는 35만82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미성년 주주는 삼성전자 전체 주주 가운데 7.07%를 차지했으며, 전체 발행 주식의 0.25% 수준인 총 1483만주를 보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대 미만 주주 1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평균 41주다. 이를 4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명당 278만3900원 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주식 투자 열풍에 삼성전자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미성년 주주는 2020년 말 11만5083명에서 불과 1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주주 가운데 20대 미만 주주 비율도 2018년 1.97%, 2019년 3.21%, 2020년 5.34%, 2021년 7.07%로 꾸준히 상승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 역사상 최대 인원인 1600여 명이 모인 지난 3월 정기 주총에는 초등학생 주주도 여럿 참석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주식 거래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미성년자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상무(광주WM센터장)는 "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보유 평균 주식 수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건 소액을 투자하는 10~20대가 적은 반면 자본력을 지닌 50~60대 투자자 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주식 열풍 속에서 부모가 경제 교육이나 증여 등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직접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청소년과 대학생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객 콘텐츠 공모전

광주은행 6월 30일까지

광주은행이 올해 세 번째 '고객 대상 콘텐츠 공모전' 작품을 오는 6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20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열린다. 출품작은 UCC(영상)와 일러스트 부문으로 나뉜다.

광주은행 브랜드나 캠페인 노래의 의미가 잘 전달되는 내용으로 3분 안팎 영상 또는 삽화를 만들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kjbank.com)와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응모작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kjbanktv@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우수작은 오는 7월 중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한다.

UCC 부문 대상(1편) 수상자는 상금 500만원을 받고 최우수상 1편 상금 300만원, 우수상 3편 상금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삽화 부문은 대상 1편에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1편에 상금 100만원, 우수상 3편에 상금 각 50만원이 전달될 예정이다.

박광수 광주은행 홍보부장은 "이번 고객 대상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광주은행의 브랜드 이미지가 보다 많은 고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복숭아 농가 일손 돕기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농협 곡성군지부, 석곡농협, 농가주부모임 30여 명은 영농철을 맞아 4일 곡성군 죽곡면 복숭아 농가에서 열매솎기를 도왔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10일부터 시행

1년간 한시적 적용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이달 11일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단,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항구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서는 결국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에너지공과대, 산학협력 기술 미국 인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한국조선해양이 공동 개발한 기술이 미국 인증을 받았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2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학회 OTC 2022에서 '해양 수소 생산 및 액화 플랜트 개념 설계'가 미국 ABS로부터 AiP(기본설계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ABS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인증 기관이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에너지공대는 수소 기술에 대한 검증 및 국제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 기술은 근해 연안에서 수전해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수소를 바로 액화 저장하고 기화해 활용처로 공급할 수 있다.

근해 연안에 수전해·액화·기화 해양플랜트를 설치하면 파도 등 외부 요인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승인을 통해 두 기관은 ▲추가 수소 기술 개념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 ▲연구개발 결과물 상용화 ▲국외 저명 학회 발표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윤의준 총장은 "개교한 지 두 달 정도 된 때에 산학협력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게 됐다"며 "이는 한국조선해양과 업무 협약 체결 후 이뤄진 첫 번째 수소 기술에 대한 귀중한 결과물이기에 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벤츠 '통합 서비스 패키지' 연장

일반수리·무상 정기점검 등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통합 서비스 패키지'(ISP)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통합 서비스 패키지는 일반수리와 무상 정기점검을 함께 보장해주는 국내 최초 서비스 패키지이다. 차량 최초 등록 이후 3년 또는 10만㎞ 주행까지 고객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대상 차량은 벤츠코리아 공식 전시장을 통해 차량을 구입, 국토부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2019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 사이 등록한 차량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순천 명품 입지 '마크원 순천' 분양 돌입

112~153㎡ 99세대…동천·봉화산 조망 도심 진입 수월

'마크원 순천'〈사진〉이 6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마크원 순천'은 순천시 석현동 28-1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7층 3개동, 전용 112~153㎡ 총 9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시행은 제이엠에셋, 시공은 중우건설이 맡았다.

세부 면적을 보면 ▲113㎡A 9세대 ▲113㎡B 47세대 ▲112㎡C 15세대 ▲112㎡D 10세대 ▲124㎡E 8세대 ▲123㎡F 8세대 ▲153㎡PA 1세대 ▲119㎡PB 1세대 등이다. 153㎡PA와 119㎡PB는 펜트하우스로 조성되며, 전용 주차장과 라운지가 제공된다.

분양 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해당지역에 이어 18일 1순위 기타지역, 19일 2순위 청약접수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며, 서류접수는 6월2일부터 5일까지다. 정당계약은 6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다.

'마크원 순천'은 바로 앞 동천이 흐르고 있고 동천 조망권을 확보, 일부세대는 봉화산 전망도 기대된다. 중앙로와 인접해 순천 도심 진입이 수월하고, 순천IC도 가까워 광양·여수 등 인접 지역 이동도 편리하다. 또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순천시외버스터미널, KTX순천역 등이 위치해 있다.

순천대 주변 상권 이용이 편리하고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순천문화예술회관도 가까워 생활·문화인프라와 함께 순천보건소, 순천의료원 등 의료인프라도 갖췄다는 평가다.

단지 바로 앞 삼산초를 비롯해 순천북초, 순천향림중, 순천매산중, 순천매산고, 순천매산여고 등 교육시설도 인접하다.

'마크원 순천' 견본주택은 순천시 석현동 4번지에 마련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4년 9월이다. 분양문의 061-751-9901.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반도체 부족 사태 2025년에나 해결"

월스트리트저널 밝혀

반도체 생산장비에 사용되는 반도체마저 부족한 상태여서 벌써 3년째로 들어선 반도체 부족 사태의 조기 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이 신문은 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반도체 생산장비를 주문해서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리드타임)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만 해도 주문에서 납품까지 시간이 수개월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경우에 따라 2~3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주문한 반도체 생산설비의 배송도 늦어지는 실정이라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인 어드밴테스트 아메리카의 덕 르피버 최고경영자(CEO)는 부품 공급 차질로 리드타임이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라면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덜란드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페터르 베닝크 CEO도 내년까지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2025년이나 돼야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부족 사태가 조기에 끝날 것이란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반도체 업계 경영진들은 반도체 부족 사태가 2024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글로벌파운드리(GF)의 톰 콜필드 CEO는 올해 안에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이란 희망 섞인 기대가 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반도체 수요는 수그러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천억달러(약 633조원)를 넘어섰으며 2030년까지 대략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융사 서스쿼해나 파이낸셜 그룹에 따르면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한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반도체 리드타임이 평균 6개월 이상으로 역대 최장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의 반도체 전문가인 피터 핸버리는 올해 일부 신설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서 자동차용 등 저사양 반도체 공급 부족은 완화되겠지만,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공급난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77.57 (-2.89)
↓	코스닥	900.06 (-7.51)
↑	금리 (국고채 3년)	3.178 (+0.039)
↓	환율 (USD)	1266.30 (-1.50)